

**Assembly of Confessing Congregations**  
**Cross Cultural Commission Statement 2008**  
**2008년 다문화 위원회 진술서**

2007년 6월, 그 첫번째 모임 이후로, 다문화 위원회(CCC)의 구성원들은 CCC의 주요 역할에 대한 고찰의 기회가 있어왔다. 즉, 호주의 UCA 내의 ACC에서의 삶에 확신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토착민 혹은 이주민 회중들의 환경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UCA 리더들이 우리에게 취해왔던 방향과는 반대되나, 우리의 성서에 대한 공약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에게 연합 교단에 남아있기 위한 작은 희망을 주는 고백하는 회중들의 총회-이하 고백교회-(ACC)를 본다.

‘성’과 ‘리더십’에 관한(R84 in 2003과 R108 in 2006) UCA의 지난 두 국제 회의에서의 결정들은 토착민들과 이주 민족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회(연회)의 R84와 R108 결의들에 의해 수용된 주변 환경들은 UCA가 그들의 관심에 대해 경청하고 수용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을 진실한 의도(목적) 없이 예의상, 그리고 PR 걸치레(눈속임)의 문제로서 유일하게 토착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관점들의 그림을 찾아왔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서부터의 일탈을 그것의 정치적 편리함을 위해, 토착민과 이주민들 뿐아니라 전체의 더 넓은 교회를 통한 복음의 소리에 대해 거부한 UCA에 의해 슬퍼졌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R84와 R108에 대한 반대자들을 교회 내부의 불충성과 문제 요인자들로서 분류해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지배하려는 UCA의 시도에 의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구성원들사이의 분열일 뿐 아니라, 다인종적 회중들에게 이미 닥쳐온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목회적 감각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 위원회는 R84와 R108에 대한 의회의 결정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영속(보존)된 주요 결정들을 지적하고 싶다 :

- ‘다양성’의 장려는 우리 사회안에서 불법/범죄적 행동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제외한채 어떤 행동, 수행, 활동(성적인 혹은 다른 것들의)위에 근거한 새로운 영적 표준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조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묵인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그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되게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되는 것이라 믿는다.
- ‘연합’은 성경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쟁. 우리는 ‘연합’이 훌륭한 기독교적 미덕이나, 연합의 이익/목적을 위한 연합은 기독교 진리에 반대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연합 자체보다는 우리가 연합하는 목적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기독교 연합은 반드시 성서에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기초되어야 한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를 그의 몸

의 지체로써 부르신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오직 기초된다.

- 우리의 부분인 '상호 관계적 회개가 없는 은혜'에 대한 아이디어는 성서적 근거가 없고, 신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다(값싼 은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안에서 동성애적 실행들을 긍정하는 UCA의 시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특히 Basis of union에 의거한 설교로 우리를 권면했던 존 웨슬리에 의해 해설 됨으로써)
- UCA에 의한 "독신의 순결함과 결혼의 성실함"에 대한 것과 동일한 위치의 존재로써, 범하여진 동성애 관계성들에 대한 인정/승인은 UCA 역사적 입장과 그것의 세계 교회적 파트너들의 입장으로부터의 이탈/배반이다.
- 2006년 지난 통계와 다른 설문조사들에 의해 보여진 것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 심각하게 감소한 몇몇 UCA 리더들에 의한 계획적인 과소평가와 소극적 연기는 참으로 통탄할만하다. --UCA에 남은 몇몇은 이주 민족 멤버들을 포함해 매우 헌신적이고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멤버들이다.--

다문화 위원회는 다음 것들에 의해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기 원한다 :

- 그 멤버들을 장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과 진리의 복음으로 설교하기를 재촉함.
- 그 멤버들이 명예롭고 성서에 대한 개혁적, 복음적, 그리고 정통적 이해를 고취하기를 도전함.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의 정통적 이해에 대한 새롭고 위험한 이탈을 한 UCA에 의해 첫 번째 단계로써 취해진 R84와 R108을 본다.
- 성서에 따른 기독교인들을 위한 올바른 관계로써, "독신의 순결함과 결혼의 성실함"위에 역사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그리고 죄의 범주로부터 동성애적 실행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들을 거부하기 위해 그 멤버들을 격려함.
- 어떤 형태든지 폭력과 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불공평한 편견들에 대항해 그들과 함께 따라오는 입장과 그들의 존엄성을 지지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사랑하도록 기독교인을 훈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도함.
- 전체 교회와 함께, 우리의 죄들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써의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한 것 등을 고백함.
- 우리 교회를 세우며, 연합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음.
-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우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함.
- UCA의 Basis of Union안에서 증거된 것으로써,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을 고수함.

ACC : 다문화 위원회: 2008년 9월 12일 the ACC AGM에서 발표됨.